

더  
용감한  
시민

## S#1 선바위역 계단 [아침/안]

지하철로 향하는 계단.

모서리에 붙어 손잡이를 잡고 힘겹게 내려가는 한 노인.

그 노인 옆을 빠르게 지나쳐 내려가는 취업준비생, 인해(남, 27).

인해를 포함한 다수의 사람들이 폭포처럼 계단을 내려간다.

## S#2 선바위역 승하차 문 앞 [아침/안]

빠르게 스크린도어 밖을 지나가는 지하철.

점점 속도가 줄어든다.

문 앞에서 거친 숨을 가다듬는 인해.

손목에 스마트워치 속 시간을 여러 번 확인한다.

순간, 뒤에서 들려오는 노인의 따가운 기침 소리.

인해는 고개를 돌려 노인을 쳐다본다.

괴로워하며 비틀거리는 노인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보는 인해.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줄 서있던 사람들이 일사불란하게 지하철에 탑승한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가는 인해.

간신히 서있는 노인을 여전히 바라보고 있다.

.

.

.

‘스크린 도어가 닫힙니다.’

.

.

.

안내음이 울리고, 문이 닫히기 직전,

노인은 쓰러진다.

목격자는 인해 한명.

모두들 스마트폰 화면만을 바라보고 있다.

시계와 노인을 번갈아가며 쳐다보는 인해.

아이씨- 하며 지하철에서 내린다.

인해가 내리자마자 곧장 출발하는 지하철.

노인은 여전히 바닥에 쓰러져있다.

인해는 노인을 향해 빠르게 걸어간다.

불편한 자세로 쓰러져있는 노인.

인해는 노인의 자세를 바르게 고친다.

노인의 어깨를 탁탁 치며 말을 거는 인해.

인해

저기요! 저기요 어르신! 괜찮으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는 노인,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여전히 의식이 없다.

인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아무나 신고좀.. 해주세요..!

승하차 통로 주변에 서있는 몇 명의 사람들.  
쓰러진 노인을 안쓰럽게 쳐다만 볼 뿐, 아무도 인해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인해

저기 아주머니..! 119 신고좀 해줘요..!

저멀리 서있는 한 아주머니.  
어머머- 하는 말만 홀로 내뱉으며 인해의 말에 대꾸하지 않는다.  
머리를 헝클이며 급하게 휴대폰을 꺼내는 인해.  
119 신고중이다.

인해

여보세요? 네, 여기 선바위역.. 지하...  
스크린 도어 앞에 8-9라고 적혀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어버버- 하며 통화중인 인해 앞으로,  
한 여자가 태연하게 걸어온다.  
귀색 체크셔츠에 후줄근한 가방을 맨 초췌한 얼굴의 여자.  
형설수설하는 인해에게 말을 건다.

여자

저기요.

인해

(여자의 말을 못듣는) 네, 문.. 문 앞에 8-9라고 적혀있고요..

여자

(큰 목소리로) 저기요.

인해

...네?

여자

제가 살려도 돼요?

통화를 하다 끊어버린 인혜.

급하게 하던 신고 접수를 마치고 여자에게 다시 말을 거는 인혜.

인혜

...뭐라고요?

여자

제가 살려도 되냐구요.

인혜

(여자를 훑어보는) 네.. 뭐.. 네.

지나치게 침착한 표정으로 노인 옆으로 다가가는 여자.

인혜는 자연스레 자리를 비켜준다.

후줄근한 가방 속에서 경찰 로고가 그려진 두꺼운 서적 하나를 꺼내는 여자.

서적에서 심폐소생술 관련 내용이 담긴 페이지를 찾고는 노인 옆에 펼쳐놓는다.

서적과 노인을 번갈아가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옆에 서서 골똘히 쳐다보는 인혜.

인혜

방금 119에 신고 접수는 했구요..

여자

네, 알아요.

인혜

(민망한 듯) 네..

두 손 각지를 끼고 심폐소생술을 시작하려는 여자.

순간, 행동을 멈추고 역 천장을 두리번거린다.

두리번거리는 여자를 보던 인혜도 똑같이 두리번거린다.

하러던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느닷없이 노인의 발목을 잡고 어딘가로 가려하는 여자.

당황해하는 인혜에게 여자는 말을 건다.

여자

좀 도와주세요.

인해

아.. 네.

인해의 도움을 받아 살짝 앞으로 노인을 옮기는 여자.  
여자는 노인을 옮기면서 여전히 천장의 어느 부분만을 응시하고 있다.  
어리둥절하는 인해.  
노인의 두 발을 다시 내려놓는 여자,  
다시 책을 펼쳐 놓고 심폐소생술을 진행한다.  
흉부압박, 인공호흡, 의식 확인 등 책에 적혀있는 대로 진행하는 여자.  
어느새 여자의 얼굴에 땀방울이 맺힌다.  
가만히 서서 어쩔줄 모르는 인해.

인해

저기.. 저도 할줄은 알아서.. 교대로 할까요?

여자

안돼요.

인해

네?

여자

안된다고요.

여자의 강경한 태도에 당황을 금치 못하는 인해.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다.  
확연히 느려진 여자의 흉부압박 속도.  
인해는 초조한 눈빛으로 여자와 노인을 바라본다.

인해

저기요.. 아무래도 교대로 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속도가 지금.. 느려져서...

여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인해

(몹시 당황하는) 네?

.

.

.

그나저나, 할 줄 아는건 맞아요?

인해의 말에 답하지 않는 여자.

여전히 책 속의 내용을 읽으며 심폐소생술을 진행하고 있다.

답답해하는 인해.

습관처럼 시계 속 시간을 여러 번 확인한다.

그런 인해를 보는 여자.

여자

빨리 가야돼요?

인해

... 그쵸 뭐.

여자

(인해를 훑어보는) ...학원?

인해

.. 그쵸.

여자

(살짝 웃는) ...공무원?

인해

...그건 왜 물어보는건데요?

인해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인공호흡을 하는 여자.

하지만, 여전히 노인은 의식이 없다.

호흡이 가빠진 인해.

엥터리 심폐소생술을 하는 여자를 쳐다보면서,

인해의 호흡이 점점 더 빨라진다.

인해

안돼...

이때, 인해는 저 멀리 유리 케이스에 들어있는 심장 제세동기를 발견한다.

빠른 속도로 제세동기를 향해 뛰어가는 인해.

잠겨있는 케이스를 이리저리 만져보는 인해.

마침내 밖으로 꺼내져 나온 제세동기,

인해는 제세동기를 들고 곧장 노인과 여자를 향해 뛰어간다.

저 멀리서 제세동기를 들고 뛰어오는 인해를 쳐다보는 여자.

여자  
(속삭이듯) 안돼...

인해가 도착하기 직전,  
의식을 되찾은 노인,  
가래 섞인 기침을 남발하며 숨을 몰아쉰다.  
무표정이었던 여자의 표정에 화색이 돋는다.  
뒤늦게 도착한 인해서는 의식을 되찾은 노인을 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여자  
(노인을 끌어안는) 어르신!! 괜찮으세요...?

황당해하는 인해.  
어리둥절하는 노인.

여자  
(상냥한 말투로) 괜찮으세요? 진짜 다행이에요... 흑흑.

슬프지만 눈물은 없는 여자의 얼굴.  
노인은 여자의 품 속에서 마른 기침을 해댄다.  
황당해하는 인해.  
뒤이어, 희미하게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  
사이렌 소리는 점점 커진다.

S#3 선바위역 1번 출구 앞 [아침/밖]

출구 앞.  
1대의 앰블런스가 정차되어있다.  
들것에 의해 실려 올라오는 노인.  
구급대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앰블런스에 탑승한다.

S#4 선바위역 승하차 문 앞 [아침/안]

1명의 구급대원, 여자 그리고 인해가 대화중이다.  
주변엔 이런 상황을 궁금해하는 시민들이 보인다.

구급대원  
저희가 출동했을 때 보통 환자가 의식이 있으면  
사실상 문제는 크지 않아요. 정말 다행인거죠.

인해

(출구로 나가는 계단을 쳐다보는)

후... 정말 다행이네요.

구급대원

그나저나.. 누가 처치를 진행하셨다고..

인해

아..네 여기..

(여자를 가리킨다.)

구급대원의 말에 집중 못하고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여자,  
뒤늦게 시선을 느끼고 고개를 든다.

여자

아, 네! 제가 하긴 했는데요..

.

.

.

시민으로서 해야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구급대원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쉽지 않는 행동이었을텐데요..

여자

그냥 지나갈 수가 없어서요..

(살짝 어색한 말투로)

흐뭇한 표정으로 여자를 바라보는 구급대원,

조사를 마치고 계단 밖으로 나간다.

떨떠름한 표정으로 서있는 인해.

여자는 그런 인해에게 말을 건다.

여자

저기.. 아까는 죄송했어요.

인해

네?

(살짝 웃는) 아니에요..

여자

상황이 워낙.. 긴박했어서..  
정신이 없었나봐요.

인해

아뇨 뭐.. 괜찮아요..

한층 밝아진 인해의 표정.

인해는 또 다시 시계 속 시간을 확인한다.

이때, 인해에게 한 번 더 말을 거는 여자.

여자

저기... 아직 지하철 오려면  
오래 기다려야 될텐데..  
(자신의 휴대폰 화면을 보여주는)  
이거 한번만 읽어줄 수 있어요?

인해

네? 필요?  
(화면을 확인하는)  
이게 뭐예요?

여자

(녹음 어플을 켜는)  
한번만,  
여기 적혀있는 대로,  
읽어주세요.

다시 당황해하는 인해.

인해는 메모장 어플에 적혀있는 문장을 읽기 시작한다.

인해

...학원을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한 어르신 분께서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누군가가 급하게 뛰어와서 응급처치를 주도하였습니다..  
...누가 봐도 완벽한...응급 처치였습니다.  
...덕분에 어르신 분께서는 다행히 의식을 되찾으셨고...  
...응급처치를 진행하던 분은 혹여나 노인이 자기가 쓰러진 것에 대해 두려움을 느낄까봐  
노인분의 몸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이로써 저는 아직 세상이 따뜻하다고...

...살만한 세상이라고.. 이 분을 보고.. 느꼈습니다...  
...용감한... 시민이라는... 말이..  
...용감한 시민이라는.. 말이..  
...이 분 덕분에 생겨난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들었습니다...  
...누구보다 용감했고...  
...누구보다 따뜻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 여자

(차가운 말투로)

네 감사합니다.

녹음을 마친 여자는 가방을 매고 유유히 자리에서 사라진다.  
멀어지는 여자를 멍하게 바라보는 인혜.  
곧이어 지하철이 도착한다.  
안내음과 함께 스크린도어가 열리지만, 인혜는 타지 않는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던 인혜,  
아까 전, 여자가 바라보던 천장 구석으로 시선을 옮긴다.  
천장 위엔, CCTV가 달려있다.  
인혜는 CCTV를 골똘히 쳐다본다.  
멍하니 서있는 인혜 옆엔 대형 전광판이 벽에 붙여있다.  
전광판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있다.

‘경찰,소방공무원 취업률 100%!  
00대학교 무료 원서 접수!  
7만명 합격생의 기적!’

인혜는 지하철을 타지 않고,  
내려왔던 계단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며 사라진다.

- 끝 -